

연중 삼대절기

[성경본문] 출애굽기 23:14-17

농사는 사람의 힘으로만 되지 않는다. 곡식과 열매들은 무엇보다 때를 따라 적절히 내리는 비와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잘 자라고 잘 익는다. 그러므로 농부들은 하나님께 적절한 비를 주시기를 기도하며 풍년을 당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이다.

추수감사절은 천주교회의 핍박을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처음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지키기 시작하였다. 광활한 미지의 땅인 신대륙에 씨를 뿌리고 가꾸며 고난의 1년을 견뎌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된 그들의 감회와 기쁨은 특별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눈물과 기쁨으로 감사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세 가지 절기

추수감사절은 구약성경에 규정된 추수 절기들의 모범에 근거한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매년 세 가지 절기들을 지킬 것을 명하셨다. 그것은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은 유월절이며 15일부터 7일간은 무교절이다. 두 절기는 때때로 같은 뜻으로 쓰인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 즈음이라고 보인다. 출애굽기 19:1은 이스라엘 백성이 1월 15일에 애굽에서 나온 후 제3월에 시내 광야에 도달했다고 말한다. 아마 그것은 3월 초일 것이며, 그것은 맥추절 즈음이라고 보인다.

수장절 혹은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기억케 하는 절기다.

연중 삼대절기는 이처럼 출애굽 시대와 관계될 뿐 아니라, 추수 절기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유대 땅의 곡식 추수는 무교절 기간의 보리 추수로 시작하여 맥추절 기간의 밀 추수로 끝난다.

무교절은 보리 추수의 기간이다. 무교절은 누룩 없이 만든 떡을 먹는 절기이다. 무교절 기간 보리의 첫 단을 안식일 이튿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레 23:10-11), 그것을 보리 초실절이라고 부른다.

맥추절 혹은 칠칠절 또는 오순절은, 보리 초실절로부터 계산하여 7주간을 지난 안식일 이튿날이다. 그때는 밀을 추수하는 때이다.

수장절 혹은 초막절은 가을에 포도주와 기름과 열매들을 창고에 다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이다. 이 절기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며 지키는 가장 즐거운 절기이다.

영적인 의미

연중 삼대절기는 추수감사의 의미뿐 아니라, 영적 의미도 가진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였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양’이라고 표현했다(고전 5:7). 예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열매가 되셨는데, 그것은 보리 초실절이 상징하는 바이다.

맥추절은 성도들이 구원받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을 상징한다(롬 8:23; 약 1:18).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고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다. 맥추절에는 누룩 넣은 떡 두 덩이를 하나님께 드리는데(레 23:17) 그것은 죄성을 가진 성도들에게 적합하며 그 떡 두 덩이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을 상징할 것이다.

수장절은 성도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을 상징한다. 알곡들은 곡간에 들여놓을 것이다(마 3:12). 이와 같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죽음, 맥추절은 성도들의 구원, 그리고 수장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감을 상징한다.

실제적 교훈

연중 삼대절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 교훈을 주는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육신적, 물질적, 환경적 복들을 감사해야 한다. 연중 삼대절기는 추수감사의 뜻을 가진다. 그것은 보리나 밀이나 포도주, 기름, 열매들의 추수에 대한 감사의 뜻이 있다. 오늘날 도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밭이나 논이나 과수원의 농사를 하는 자들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한 해에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주셨다.

세계 곳곳에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부족하여 고생하는 자들이 많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실업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동족인 이북에 사는 동포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선을 넘어 탈북을 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굶어죽지 않고 생존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듯이, 자기의 백성된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며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마 6:26-30).

하나님께서서는 이 한 해에도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다.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스로 벌써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한다. 나이 든 분들이 젊은 때와는 달리 몸에 연약한 부분들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질병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아직 아파 죽지 않고 생존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에 연로하셨던 집사님 한 분과 평소 몸이 많이 안 좋으셨던 집사님 한 분만 천국으로 불러가셨다.

출애굽기 15:26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고 말씀하셨다. 또 잠언 3:7-8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혹은 건강, 치료]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고 말한다. 또 시편 91:6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 중에 행하는 염병[전염병]’ 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말했다.

2014년에도 세계에는 여러 대형 사고들과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다. 3월 8일에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으로 탑승객 239명이 실종되었고 7월 17일에는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영공에서 피격되어 탑승자 295명이 사망하였다. 8월 3일에는 중국 윈난성에 강진이 발생하여 4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2월 17일에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사망 10명, 부상 124명), 4월 16일에 세월호 침몰(사망 295명, 실종 9명), 4월 7일에 윤 일병 집단 구타사망, 5월 20일에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망 21명), 6월 21일에 강원도 고성 22사단 총기난사사건(사망 5명, 부상 6명), 10월 17일에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추락사고(사망 16명, 부상 11명) 등 여러 사건들과 사고들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생존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도 또 올해에도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셨다.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전쟁이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계속된 싸움 속에 5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었다고 한다. 시리아는 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아직도 평안이 없다. 우크라이나는 동부 지역의 친러시아주의자들 때문에 내전을 치루었고

아직도 안정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이슬람 국가(IS) 건설을 주장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전쟁을 치루고 있다. 때때로 북한도 우리를 향해 포악한 말들을 내뱉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평안히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은혜를 감사하자.

둘째로, 우리는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항상 감사해야 한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며 지옥 형벌이었다.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즉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만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들을 맑게 씻어주셨다. 죄씻음의 결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도를 믿게 되었고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 이 세상에서 육체적 죽음과 그 후에 들어갈 지옥 형벌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어 지옥 가야 마땅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씻음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구원을 항상 감사하자.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먼저 추수 절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는 비록 농사를 짓는 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을 주셨고 사회적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것을 감사하자. 죄로 인해 죽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됨과 천국과 영생의 복을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크신 구원을 항상 감사하자.